

더불어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5. 4. 22.(화) 18:00	배포일시	2025. 4. 22.(화) 18:00 배포 즉시
위원장	이정현 (010-7343-4565)	담당자	사무국장 최대혁 (02-6788-6971)

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,
 ICT 업계와 정책 공조 나서
 “美 ‘한국 ICT 무역장벽’ 지적에
 원팀으로 대응”

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·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,
 22일(화) 현장 간담회 개최

- 이정현 위원장, “복합 위기 파고에 원팀 대응...
 혁신적 아이디어에 적극 투자하는 대한민국으로” -

□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이정현 의원(서울 광진구갑)은 22일(화) 오후 4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(이하 ‘ICT대연합’)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.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ICT 업계와의 정책 공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자리다.

□ 이번 간담회는 ICT 업계의 정책 제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, 입법·정책 과제 도출의 기반을

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. 급변하는 ICT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책과 혁신 기술 촉진 방안도 논의했다.

- 간담회에는 이정현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윤희, 김현목, 김형욱, 박예슬, 안정상, 이상헌, 이원태 특위 부위원장과 권오상, 권태돈, 윤천원, 장재진 특위 고문이 참석한다. ICT대연합 측에서는 노준형 회장, 석제범 사무총장, 부회장사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.
- 논의 주제로는 △ICT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인재 확보 △청년창업 및 벤처 육성 지원 △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불균형 해소 △미국의 국내 ICT 무역장벽 지적 대응 △차기 정부를 향한 ICT 업계 정책 제안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졌다.
- 특히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(USTR)가 발표한 ‘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’에서 미국 측이 클라우드 보안인증(CSAP) 등 국내 ICT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, ICT 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.
- 이정현 의원은 “복합 위기를 넘어서려면 더불어민주당과 ICT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”라며 “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ICT 기업들이 손발 묶인 채 고군분투하지 않도록,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”라고 밝혔다.
- 이어 이 의원은 “이제는 정부가 혁신 아이디어에 과감히

투자하고 위험도 함께 감수하는 ‘투자하는 대한민국’으로 거듭날 시점”이라며 “정보통신특위가 ICT 업계와 당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되어 인프라 투자와 제도 개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”라고 강조했다.